

그 사이에 波狀文이 陰刻되었다. 二碗 兩側에 車輪形이 있는 데 車軸은 圓形突起로 表現하고 車輻數는 한쪽이 十二이고 다른쪽이 十三이다. 碗의 兩側 下部에서 兩 車輪에 걸쳐 圓帶를 둘러서 車輪을 固定시켰고 또 車輪 下部에도 軸으로 高台에 依支하여 이를 固定시키고 있다.

品中에도 있어 現在 日本에서 重要美術品으로 指定되었거니와 그 보다는 若干 슴씨가 떨어져 가는 하나 매우 稀貴한 例라 하겠다.

全高一·五·八cm 臺高七·五cm 臺下徑九·六cm 碗口徑四·六—四·七cm 車輪徑九·七—九·八cm

二、五碗付高杯形土器

中間이 잘속한 二段의 高台위에 五碗을 密集하게 附着시켰다. 台에는 下端에 三條, 中間과 上端에 各各 二條의 陽刻線을 두고 上下段에 各各 長方形 五孔을 뚫었다. 그 위에 比較的 긴 碗이 얹혔는데 上寬下促이고 上部에 一條의 陽刻線이 있을 뿐 다른 文樣은 없다.

이러한 土器는 他例도 없는 바 아니나 高台와 碗部에서 形態의 差異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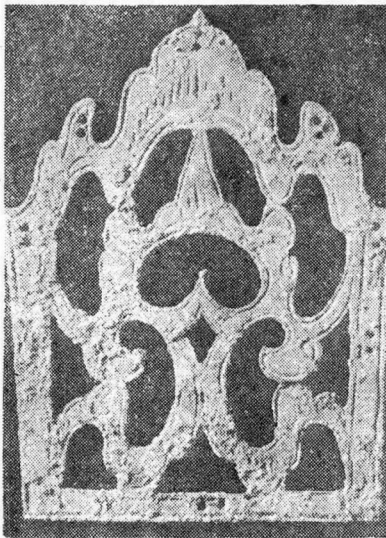
全高一·八·五cm 臺高一·二cm 臺下徑一〇·九cm 同上徑一一cm 碗口徑四·

一—四·三cm

百濟의 寶冠飾金具

孟 仁 在

이 金具는 一九一五年 「朝鮮古蹟圖譜」에 紹介된 것을 비롯하여 其間 諸家の 著書에도 적지 아니 실렸고 널리 알려져 있어 여기서 또 敷衍하기는 매우 거북하기도 하나 若干 새로 생각나는 점이 있기에 敢히 몇마디 蛇足を 달아보기로 한다. 이 金具의 透彫文樣에 대한 說明은 어디서나 山岳文樣과 忍冬文과 結合된 流雲文 또는 雲氣文으로 一致하고 있는 모양이고 이와 同系の 것으로 法隆寺 玉虫厨子の 須彌座金具의 文樣을 들고 있다. 그 一例를 들면 「陵山里中上塚古墳에서 發見된 寶冠狀飾金具는 忍冬文의 樣式을 加味한 一種의 流雲文으로 이루어진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인데 그 意匠에 있어서 玉虫厨子の 須彌座金具의 透文樣과 軌를 같이 하고 있음은 이에 새삼 설명할 필요가 없는 바이다」(齊藤忠著 朝鮮古代文化の研究)라 한 것과 같은 것인데 여기서는 山岳文이야기가 없으나 U形의 兩端을 蓮結한 山岳文은 漢式圖文에도 보이는 바 그 以外の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으나 U形內에 들어 있는 忍冬 또는 流雲文에 대해서는 若干의 疑心이 간다. 이 文樣은 忍冬이나 流雲이 아니라 두마리



의 鳳凰으로 생각이 되는데 扶餘 窺岩里出土의 鳳凰文 樽에 들어 있는 바와 같은 것을 省略簡化한 것으로 推測된다. 中央의 山岳뿌리와 連結된 三角形(山岳)에서 머리로 시작되는 두마리의 S字形 鳳凰은 부리(嘴)와 앞으로 나온 작은 날개 그리고 가슴을 서로 맞대고 있는 듯 하며 樽에 있는 것과 같은 모양의 날개를 달고 있다. 樽에서와 같이 鷄冠은 보이지 않으나 向右側 봉황에 線刻된 예리한 부리는 分明히 알아볼 수가 있다. 全體各部分의 輪廓을 線刻한 手法는 樽의 그것과 同一하며 날개끝이渦狀으로 말리지 않은 것은 透彫이기 때문에 技法上 制限을 해버린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꼬리의 處理에 있어서도 한편은 圓形連珠文帶 內緣을 따라 가늘게 圓形으로 둘러져 있으나 金具에 있어서는 拋物線狀의 무게 있고 화려한 意匠을 보이고 있다. 忍冬文이라 하면 오히려 玉虫厨子의 그것에서 分明히 볼 수가 있었고 山岳文이 같다는 것만을 들어 이편이 源流가 되어 있는 것을 도리어 附會하는 것은 主從이 바뀐 뿐 아니라 鳳凰을 忍冬으로 보게되는 原因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도 된다. 아래베 스크風으로 左右 均齊하게 놓는 것은 이 밖에도 많은 類例가 있거니와 金具의 中央에 垂直線을 긋고 보면 양편의 文樣은 分明히 鳳凰의 모습을 띠는 것 같다. 對象의 實體가 雲文으로 보이는 경우는 漢時代의 漆器 그림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가령 龍의 運動과 어떤 部分의 움직임에 대하여 力動的인 表現初果를 나타낼 경우가 그것이다. 이 金具의 文樣은 玉虫厨子에 보다는 樽의 그것과 더욱 밀접한 近親關係가 있을 것이며 抽象的인 雲文 忍冬文에 보다는 훨씬 鳥類(註)(鳳凰)의 實體와 가까운 듯하다.

[註] 鳥文에 관한 새로운 연구는 金元龍博士의 「高句麗古墳壁畫의 起源에 대한 연구」(震檀學報第二十一號)를 參照

新羅의 蓋付土器

洪 思 俊

이 土器는 月城郡 內南面 望星里(새말)에서 出土되었다고 傳하는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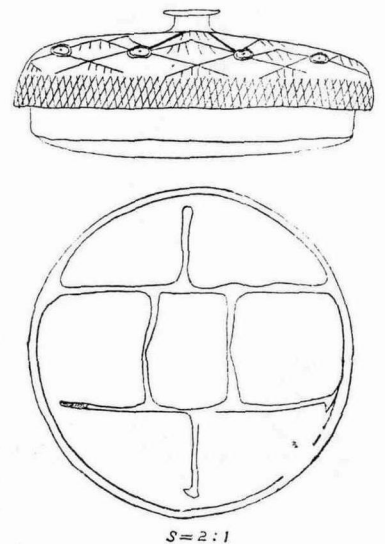
第二卷 第十一號

通卷十六號

기드문 異例의 遺物이다. 上下 二個로 分離되었고 밑의 土器에 위의 蓋가 깊숙히 덮이게된 灰色 土器이다. 身部의 內面을 보면 橫으로 二段의 同間隔으로 막혀졌고 上段과 下段으로는 縱으로 一段이 막여져서 總七孔이면서 中間孔만은 四角이나 器周의 孔들은 圓周에 따라 松餅形에 가까웠다. 土器의 身蓋表面의 文樣은 圓周外側은 身蓋가 交窓形의 線文이 그어졌으며 蓋는 不幸히 破損이 甚하나 原形을 알아볼 수 있는데 蓋의 손잡이는 頂面이 平平하고 圓形의 꼭지가 中央에 달려 있다. 蓋表面에도 손잡이 周圍에 小圓 七個가 同間隔으로 羅列되었고 周緣에도 同様の 小圓이 線刻되었는데 現存한 小圓이 十一個가 남아 있으므로 本是는 二個가 더 있었으리라고 생각된다. 또한 小圓間에는 雜多한 縱橫線이 交替되고 있다.

이 土器의 用途를 생각할때 高麗磁器中에 化粧具가 있음을 보아서 羅代부터 이러한 그릇이 쓰여져서 高麗로 傳하지 않았나 推測된다.

크기 高 直徑
 身部 五·二cm 一五·三cm
 蓋部 四·六cm 一七·〇cm



正豐二年銘小鍾 (서울 朴秉來氏藏)

鄭 永 鎬

이 小鍾에 對하여는 黃壽永氏가 本誌에 그 拓銘을 紹介하여(註) 이미